



» 육계 자조금사업 추진현황

# 육계자조금은 육계산업 성공의 지름길

– 자조금으로 생산농가의 중심역할기대 –



김 재 홍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부 차장

## 서론

자조금이란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여러형태의 자조적 재원형태를 말하여 단체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잡부금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협의의 자조금이란 법정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인 기금이며 일반적으로 자조금은 협의의 의미를 가진다. 법정규정에 의한 자조금을 법정자조금 또는 의무자조금(Mandatory Check-off Fund)이라고 하고 법정규정이 전제되지 않고 집단의 결의에 의해 스스로 납부하는 형태의 자조금을 임의자조금(Voluntary Check-off Fund)이라고 한다. 법정규정의 경우에도 집단구성원 대다수의 찬성을 전제로 한다.

즉, 단체의 회원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그 조성한 단체에는 정부의 자조금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예, 농가거출금이 8억이면 정부에서 보조하는 자금이 8억임)

## 본론

많은 육계인들의 기대 속에 2009년은 육계자조금사업이 제자리를 찾아 지금 현재까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은 육계자조금 사업이 진행된 이후 공식적으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가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날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을 육계자조금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5월에는 육계자조금대의원총회를 열어 육계자조금사업 계획서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육계자조금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육계자조금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 우여곡절도 많이 겪어 과연 육계자조금사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이 취임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육계자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열사 참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당진에서 ‘2008 전국양계

인대회’에서 생산자가 직접 육계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힘찬 결의를 하여 육계자조금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생산자의 의지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지금까지 육계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해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표1. 육계자조금 추진현황**

일시	회의명	주요내용
'04. 11. 15	제1차 육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 개최	준비위원장에 계육협회 한형석회장선출 설치준비위원회 운영규약 채택
'05. 10. 24~28	육계자조금 대의원 선거 실시	대의원 135명 확정하고 당선자 공고(11. 8)
'05. 12. 23	1차 육계자조금 대의원회 개최	정족수 미달로 무산
'06. 4. 20	2차 육계자조금 대의원회 개최	- 의장 선출, 거출금액 (육계5원/수, 삼계2.5원/수, 재래닭 7.5/수, 종계50원/수) 결정 - 대의원 중 관리위원 위촉(안) 부결
'06. 11. 21	3차 대의원회 개최	무기명 투표결과 가부동수로 위원 위촉(안) 부결
'07. 4. 26	임시 대의원회 개최	- 육계자조금관리위원(감사포함) 위촉건 -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회
'07. 11. 11~19	4차 대의원회 의결사항 서면결의 추진	- 육계자조금 대의원 중 관리위원 지명 및 감사위촉 건 통과 * 135명 중 찬성89, 반대1명 서면결의서 제출
'09. 2. 10	당연직 관리위원 (학계 및 유통전문가) 서면결의	- 2009년 2월 25일까지 학계 및 유통업계의 전문가 지정 건에 관해 서면결의서 접수결과 참석대의원수 77명중 : 찬성 76표, 무효 1표 - 학계: 김정주 건국대학교 교수, 유통: 김락석 농협목우촌 전무이사 - 관리위원회 구성완료
'09. 4. 2	제1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 관리위원장 양계협회 이준동회장 선출 - 부위원장 계육협회 서성배 회장, 종계 함경섭 위원 선출 - 육계자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정
'09. 4. 17	제2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 육계자조금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서(안)심의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 - 양계협회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이용
'09. 5. 6	제1차 육계자조금대의원대회	-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서 만장일치로 통과
'09. 6. 25	2009년도 육계자조금사업 거출 알림	- 전국 41개 도계장 및 각 축산관련 언론사
'09. 8. 24	육계자조금 관리사무국 직원채용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국직원채용 - 신입직원(서경원 주임) 채용



## 육계자조금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육계자조금대의원을 선출해 놓고 1차 대의원총회는 전국적인 폭설로 인해 대의원참여가 어려워 무산 되어버리고 '06년 4월의 대의원총회에는 육계산업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구성원간의 갈등과 정책부재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계열화 사업이 20년 이상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생산자중심이 아닌 계열주체 중심으로 변질되고 사육농가의 입지는 점점 약해지면서 일방적이 피해의식만 잠재되어 기업의 논리에 생산자의 의견은 무시 돼 버리는 등 정부당국의 무관심으로 갈등은 점점 깊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열주체와 농가와의 관계가 산업의 동반자가 아닌 닦고기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치부되고 사육농가의 어려움해결이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날 자조금대의원총회에서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자조금사업의 본질이 회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였던 것이 자조금이 꼭 진행되어야 한다는 농가의 바람이었던 것이었다. 그 후로 대의원총회시마다 계열사 성토장이 돼 버려 자조금관리위원 구성자체가 어려웠다.

초기 육계자조금사업은 계열사와 농가의 거출금 분담을 놓고 의견이 많았다. 이젠 생산자가 중심으로 자조금을 납부하기로 결의 하였고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계열사는 자조금사업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 최근 모협회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자조금납부동의서는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계열사가 강제적으로 자조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조금사업에 대해 회의적으

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타 축종의 경우 도계장 및 계열화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고 자조금법은 농가가 당연히 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조금납부동의서라는 것을 내세우는 모협회의 주장은 계열사가 자조금사업 참여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80%이상이 계열화사업 체계에서 농가는 산지시세와 관계없이 사육비를 받는 구조로 되어 옛날의 일반사육이 아닌 계열사의 사육회전수를 높여 농가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변했다. 당연히 육계농가는 자조금사업으로 소비홍보를 하면 계열사만 이익이 되고 농가에게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육계자조금사업은 농가가 전액 자조금을 납부하므로 계열사가 아닌 육계농가를 위해 사업을 집행할 것이다. 자조금사업은 법으로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로 구분되어 있다. 타 축종의 경우 소비홍보가 50%이상을 차지하지만 육계자조금은 소비홍보 보다는 농가교육 및 조사연구가 50%이상을 차지한다. 즉 농가중심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이다.

육계자조금으로 소비홍보 보다는 농가교육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 형성과 생산농가의 의식을 개혁하고 생산자의 경영자화가 되어야 한다. 누구와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게 논리적 사고 배양을 통해 육계농가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생산자가 정책형성에 참여하여 생산자 중심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로서 우리는 산업의 장기발전에 주도적이어야 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과 생존전략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육계농가의 수익구조에 대한 연구, 계열화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등과

같이 농가의 수익증대를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육계산업은 계열사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제는 자조금사업으로 육계농가위주로 산업이 재편되어야 한다. 육계농가 여러분 자조금 사업에 계열사참여와 상관없이 육계산업에 육계인들이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젠 육계자조금사업 없이는 두 번 다시는 육계산업에 생산농가가 주도할 수 있는 장치는 없을 것이다. 계속 계열화사업에 불만만 가질 것인가? 육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한우자조금, 양돈자조금사업은 매년 거출금액이 증가되고 있고 농가의 거출율도 100%에 가깝게 조성되고 있다. 낙농자조금은 육계자조금과 산업적인 측면이 아주 비슷하다. 낙농자조금도 마찬가지로 원유를 회사에 전적으로 납품하는 구조이지만 자조금은 농가에게서 거출하고 있다. 자조금이 구심점이 되어 농가의 수익을 간접보존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축종의 농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계자조금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조금사업의 본질을 떠나 단시일 내에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고 육계산업 전체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도 힘들다. 육계자조금사업으로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농가교육과 생산자의 정책형성의 참여가 진행되면 산업의 장기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 결론

DDA, FTA확대로 국제경쟁력에 육계농가도

자유로워질 수 없는 처지다. 육계농가가 모두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 어려운 난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발점이 바로 육계자조금거출에 모든 육계인이 참여하는 것이다.

올해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자조금거출이 시행되고 있고 농가, 계열주체, 정부당국간의 신뢰가 없으면 자조금사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계열사는 자조금납부동의서라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사업자체를 애매하게 몰고 가려는 점 때문에 공은 우리농가들에게 달렸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열주체는 자조금사업을 통해 생산농가는 산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열화사업을 배제하고 육계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열주체를 중심으로 육계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면 이제 생산농가가 중심이 되어 계열주체와 협력하여 산업발전을 이루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화를 앞세운 개방화시대에 사육농가와 계열주체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기업경영의 노하우와 생산농가의 정서적 무기가 육계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계열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육계자조금사업은 농가중심의 사업임을 확신한다. 육계자조금 5원을 투자하면 50원 이상의 이익이 돌아오는 사업임을 명심해야겠다. ■

